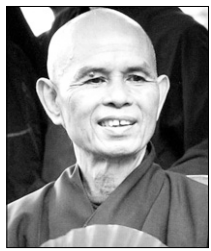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 지지발언' 정부 미움사

틱낫한 스님, 제자들, 수도원서 축출 위기

세계 4대 생불(生佛)로 추앙받는 틱낫한 스님(사진)의 달라이 라마 지지발언이 문제가 돼 제자스님들이 수도원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문제가 발생한 곳은 베트남 중심 고산지에 있는 바트나 수도원. 틱낫한 스님과 뜻을 함께하는 바트나 수도원의 스님들이 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틱낫한 스님은 2008년 이탈리아 TV와 인터넷에서 "달라이 라마의 베트남 하노이 집회를 허가해야 하며 중국은 그가 티베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발언이 불씨가 돼 베트남 지방 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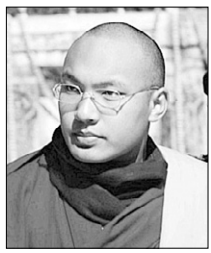
국은 틱낫한 스님의 가르침을 연구하고 명상하는 바트나 수도원의 전기와 물, 전화까지 끊어버렸다. 또 폭도들이 쇠 망치를 들고 사원으로 침입해 창문과 건물을 부수는 등 스님들을 위협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베트남 내 불교 파벌 간 불화로 인해 소란이 발생했다며 바트나 수도원 스님 378명에게 사찰을 떠나라고 지시했다.이에 대해 수도승들은 최근 틱낫한 스님이 달라이 라마를 지지하고 베트남 내 종교의 자유가 확대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정부의 미움을 샀다고 반박했다. 이너는 기자

17대 까르마파, 인도서도 통행제한

중국 우호관계위해 제약 지속 전망

티베트 불교의 주요 종파중 하나인 카규파의 지도자 17대 까르마파 우겐트린리 도르지(Ugyen Trinley Dorje·사진)가 인도에서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2000년 당시 14세였던 17대 까르마파를 티베트 지배의 상징으로 이용하기 위해 추대했다. 그러나 까르마파는 티베트를 탈출, 인도로 망명했고 중국은 인도측에 망명 불허를 요청했으나 인도가 이를 허용하지 않자 양국 간에 마찰이 일어났다.

현재 중국과 경제적 우호관계를 맺고 있는 인도가 중국과 이전과 같은 마찰을 없애기 위해 까르마파의 행동반경을 제약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북인도타임즈(North India 이너는 기자

Times는 최근 다람살라로 망명한 뒤 인도 국가보안부로부터 감시를 당하고 있는 까르마파의 소식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까르마파의 행동반경은 달라이 라마가 있는 곳에서 15km까지 제한돼 있으며 심지어 달라이 라마를 만날 수도 없다고 했다. 달라이 라마의 측근은 "달라이 라마 집회를 3번 요청한 끝에 까르마파는 7월 25일 30여분 동안 만 달라이 라마를 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인도 정부는 까르마파의 해외여행까지 제한했으며, 자금출처를 조사하기 위해 코탈라 지역에서 진행 중인 건축물사까지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꿈이 생기니까 내일이 보여요”

조계종 복지재단, 의지나눔 쉼어월 1기 졸업캠프 열어

부모 등 주변인으로부터 조인을 얻기 힘든 저소득층 청소년에게 다양한 직종에 대한 이해를 도와 호응이 높았던 '청소년 의지나눔 쉼어월' 프로그램이 시행 1년째를 회향하는 행사를 가졌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대외)은 8월 8-9일 경기도 여주 신태사에서 쉼어월(Sharewell) 1기생들을 대상으로 '꿈과 희망의 의지나눔 쉼어월 졸업캠프'를 진행했다.

행사는 쉼어월 1기 청소년 50명을 비롯한 요리사·변호사·헤어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인봉사자 및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신태사 주지 세영 스님은 입소식에서 "공부를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성공과 실패는 모두 여러분의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며 "복지재단에서 준비한 프로그램을 통해 확실한 목표를 갖고 살면서 국가와 사회를 위해 일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입소식이 끝나고 쉼어월 1기생들

은 신태사 앞 캠프장에서 조별 레크리에이션, 바나나보트 타기 등 물놀이를 한 뒤 신태사 보전 스님의 지도 아래 저녁 밥공양을 했다.

이후 아이들은 본격적으로 자신들의 꿈과 목표를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첫 시간은 '내 꿈 찾기'로 서상호 신라호텔 총주방장이 초대돼 일류요리사가 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두 번째 시간에는 이영대 박사(한국직업능력개발원)가 '로드맵 그리기'를 강의했다. 각 조별로 동그랗게 모여앉아 아이들은 진지하게 자신들의 진로를 고민하며 미래의 모습을 그려 나갔다.

그다음 세 번째 코너는 '만나고 싶어요' 시간. 아이들은 캠프에 참여한 게임개발자, 생명공학연구원, 작가 등 다양한 직업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했다. 쉼어월 1기생들은 지난 3-8월 6개월 동안 10회에 나누어 회계사, 법조인, 의료인, 디자이너 등 다양한 직업인들과 만남을 가져왔다. 이들



쉼어월 1기 청소년들은 서상호 신라호텔(맨 윗줄 두 번째) 총주방장과 진로와 관련된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로드맵도 작성했다.

은 놀토(격주 휴무 토요일)를 통해 직업인들의 현장을 방문,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고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배우면서 변화된 자신들을 보며 놀라워했다. 캠프에 참여한 이유리(송인중 1) 양은 "삼성증권 자산관리사를 만났을 때 자기관리법을 들었고 그분 말씀처럼 자기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공부하고 목표를 향해 나

아가다 보니 기말고사 때 평균 10점이 올랐다"며 "교사가 되고 싶었는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의욕이 생겼다"고 말했다.

신태사(구산중 3) 양은 "드라마, 영화를 보면 의사,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현장에서 직접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보니 신기하고 흥미로웠다. 끝났던 직업

의 세계도 많아 좀 더 확실하게 목표를 잡아나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쉼어월은 청소년들에게는 진로탐색에 큰 도움이 되고 시간이 없어 봉사활동을 하기 힘든 직장인들에게는 뜻 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서로에게 윈윈(win-win)하는 프로그램이다. 박병선 교육팀장(박준뷰티랩)은 "아이들이 진로선택을 위해 다양한 직업인들과 만나는데 내 자신이 헤어디자이너의 본보기가 되니까 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에 열심히 일에 매진하게 된다"며 "진로탐색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 가이드 역할 등 도움을 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쉼어월 프로그램을 준비한 복지재단 박찬정 부장은 "차차 목적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올바른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들에게 불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목적이 있다"며 "이에 맞게 봉사자, 참여자가 체계적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며 하반기에 2기들을 뽑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bohyung@buddhapia.com

“임신한 몸으로 아무것도 못해줘 미안해요”

생명나눔실천본부, 8월 환우 전신화상 입은 조경씨 선정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미안하지만 합니다."

한국으로 시집온 베트남 여성이 낫 뒤 출산을 앞두고 절망에 빠져있었다. 전신 70%에 2-3도 화상을 입은 남편을 보면 가슴이 타들어가기 때문이다.

생명나눔실천본부(이 사장 일민)는 2009년 8월의 환우로 조경(38·남)씨를 선정했다.

조경씨는 지난 현충일 우유납품으로 울산 간절곶을 지나 산불에 휩싸여 질식사한 상태로 119 구급대에 의해 간신히 구출됐다.

전신에 화상을 입은 조경씨는 8차례의 수술을 받았고 앞으로도 가피 제거수술과 피부이식수술을 받아야



조경씨는 전신화상을 입어 7000만원의 치료비가 들지만 1억 원의 부채까지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할 처지다.

한다. 그러나 화상범위가 넓어 자가 피부이식도 어렵고 순조로운 이식이 이루어진다 해도 운동장애와 통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조씨가 다시 일어설려면 장기간의 재활치료가 절실하다. 하지만 지난 1달여 동안 4000만원의 치료비가 들었고, 앞으로도 7000만원 이상의 치

료비가 예상돼 가족들은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더욱이 조씨는 홀어머니를 모시며 생계유지를 위해 우유대리점을 시작했지만 경기불황으로 우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1억 원의 부채까지 지고 있다.

2008년 7월 남편만 믿고 한국으로 온 베트남 부인은 자신을 아끼고 사랑해주던 남편이 화상으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를 지켜만 봐야하고, 임신한 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미안하기만 하다. 조씨 가족은 시세 3500만 원의 집을 팔고, 형제들도 심시일반 치료비를 지원했지만 미납액 670만원과 7000만원의 치료비를 마련할 길이 없다. 후원계좌 통령 053-01-243778 예금주:생명나눔 이너는 기자

월급모아 기증 '따뜻한 냉동탑차'

한국인삼공사, 복지기관에 냉동차량 5대 기증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는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음식을 운반할 수 있는 냉동차를 전달받았다.

국내최대의 민간 먹거리나눔 운동기구인 먹거리나눔기운동협의회(공동대표 대오, 김재열, 배태진, 김경림·이하 협의회)가 한국인삼공사로부터 사랑의 냉동탑차를 지원 받았다. 한국인삼공사(사장 전상태)는 임직원들이 심시일반으로 모은 금액 1억 500만원으로 1톤급 냉동차량 5대를 구입, 협의회에 전달했다. 전달식은 8월 12일

대한 성공회 서울주교좌성당 앞 마당에서 열렸으며 협의회는 전달받은 5대 차량을 먹거리 나눔 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양평종합사회복지관, 낙산사복지재단 등 5개 복지기관에 다시 전달했다. 대오 스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기에 인삼공사 임직원분들이 월급의 일부를 모아 차량 기증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이너는 기자

세계 최초의 기반 수련전용방식

氣 giban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기반은 선문과 명상, 수련 활성화를 위하여 만들어 진 명품입니다. 선정을 닮으면 마음이 매우 고요하고 지혜로워져서 생각을 혼란하게 하는 걱정 근심이 저절로 말끔하게 사라집니다. 물질 만능주의로 빠지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지금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일상생활에서 맹목적인 타성을 벗어나 자신의 본바탕으로 돌아가 깨어 있는 삶을 살아 갈 수 있는 수련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수련하기 어렵거나, 그만큼 어렵도 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행을 하는데 쉽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 수련 도구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번 건강의료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뼈아프게 느껴 세계최초의 수련 전용 기능성 방식인 기반을 출시하였습니다. 기반은 사부대중들께서 성불 하실때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 제품의 특징 ※

영양이 모양의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합니다. 영양이 뒤쪽과 꼬리뼈와 허벅지를 있는 방식의 중심을 높게 설계하여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크기가 작아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든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좌복위에 놓고 참선 및 명상을 하시면 더욱 좋은 자세로 유지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셔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기반 앞 면에 음자를 새겨 수행하는데 태초의 氣가 충전하도록 하였습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제품사용처 : 사찰, 수행단체, 선방, 심신수련단체

주문은 현물샴!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고급형 39,000원 → 35,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받) 6cm]

■ VIP형 (최고급 메모리폼 내입) 49,000원 → 44,000원 (10%DC)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받) 8cm]

10%DC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F. 02)737-0696

조상의 슬기를 모은 치료 비법 성훈따주기 강좌 안내

성훈따주기란?

성훈따주기는 누구나 쉽게 바늘 하나로 몸에 병을 다스리는 민간요법입니다. 성훈스님께서서는 구전으로 내려오던 전통 따주기를 체계화 하면서 이익을 추구하지 말고 모든 이의 건강에 도움을 주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동안 따주기를 배운 회원들은 매달 군부대와 사회복지시설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배워 활용이 가능하며 뜻있는 분들은 연락바랍니다.

강좌

1 1박 2일 강좌(숙식제공)

- 일정 및 수강료
 - ① 일 정 : 2009. 8. 22(토) 오후 1시부터 ~ 8. 23(일) 오후 6시까지
 - ② 수강료 : 10만원 (교재, 침 별도)
- 모집인원 : 25명 (선착순)
- 장 소 : 대한불교조계종 백 천 사 (강의실)
- 준비물 : 편안 복장 및 개인 세면도구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5047 H·P 010-2031-1233

2 매주 화요일 강좌(10회 과정)

- 시 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수강료 : 10만원
- 장 소 : 수효사 효림원 8층 (법당)
- 접수 및 문의처 : ☎ 02) 313-3060

※ 따주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무료)

※ 교재 : 6,000원 / 침 : 10,000원

한·국·전·통·따·주·기·공·덕·회